

음식과 수행

동지(冬至) 팥죽의 유래

이스라엘 민족 유월절 행사에서 유래

며칠 전 동짓날에 한 지인과 팥죽을 같이 먹으면서 팥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팥죽을 쑤어 부엌이나 문 앞에 뿌렸던 일, 또 나이만큼 새알심을 팥죽에 넣어서 먹었던 일 등등. 요즘은 동지를 잘 챙기지 않지만, 예전에는 설 다음가는 명절로 생각할 만큼 동지를 크게 생각했다고 한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의 절기로 일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민간에서는 동지를 흔히 아세(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 하였다고 한다.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팥죽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에는 음기가 강한 날이라 해서 붉은색의 팥죽으로 액운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외에도 동지 팥죽과 관련된 속설을 보면, 전염병이 유행할 때 무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 '팥죽을 먹어야 겨울에 추위를 타지 않고 공부(공부)를 방해하는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 등의 속설이 전해져 오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붉은색의 팥죽으로 액운을 물리친다는 것은 확실히 맞는 말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왜 이와 같은 세시풍속이 전해져 오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만이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간자 되시는 조희성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단지파라고 말씀하셨다.

그 근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과 유대인의 골격, 곰살 같은 점이 있고 또 무덤 양식이 적석무곽분이 같고 제사를 지낼 때 돌 제단을 쌓는 점이 같다.

장례 방식은 더욱 흡사한데 거령, 상주들

이 배옷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하고 곡을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뿐이다. 이 외에도 매운 음식과 부추, 향어 등을 즐겨 먹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외당에 고대 이스라엘 문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성경 상에 야곱의 12지파 중의 단지파는 지금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중간 세 일산 부근인 소라 지역에서 자리 잡고 수백 년간 블레셋 민족과 싸우다 삼촌 장수를 잃고 전의를 상실하여 동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단지파는 성경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단지파가 한반도까지 이동해 온 경로를 이간자께서 말씀해 주셨다.

단지파는 지금의 레바논 라이스와 단 지역에서 떠나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거쳐 중국 북부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백여 년을 머물며 지나게 되는데 기성세대는 다 죽어 그곳에 묻히고 2세대들은 그곳에 적응하여 알타이어를 배우게 되면서 고대 히브리어를 전부 잊어버리게 된다. 그 후 알타이산맥을 넘어 몽고를 거쳐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도착한 후 대동강변에 고조선을 세웠다.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인 것이다.

이처럼 단지파인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을 하였고 알타이어를 쓰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풍속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벗어나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 풍속이다. 그런데 한반도에 와서 보니 제물로 사용할 양이 없게 되자 대신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팥죽을 쑤어 문설주에 바랐던 것이다.*

이승우 기자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구세주는 영원 전부터 살고 있는 생명체~

이 사람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명체이다. 영원영원 전부터 살고 있는 생명체인데, 지금은 사람 몸을 빌려서 입고 있다. 사람 몸만 벗어던지면 그대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냥 그대로 원시반본이 되는 사람인 것이다. 초창기에 이 사람이 단상에서 불명의로 변신했던 것이다. 그걸 잠시 잠깐 했던 것이다. 그걸 오래 하면 마귀가 흉내를 내고, 마귀가 똑같이 단에 서서 불덩어리가 되어버리면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이 비행 접시의 장본인이다. 여기서 자기 비행 접시가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이 가까이 가면 아주 멀리 도망가 한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이 되는 사람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이 요술이 아니요, 하나님의 정상적인 움직임인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주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아름다운 자세를 위한 스트레칭~

몸과 마음을 깨우는 스트레칭 유의사항

1.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스트레칭 한다. (부상 방지)
2.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서서히 늘릴 수 있도록 한다.
3. 자연스런 호흡을 하면서 한가지 자세를 20~30초 정도 유지하도록 한다.
4. 반동(비운스)을 주지 말고 천천히 근육을 신전(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작①: 목 부분 (양쪽 각각 교대 3회)
- 동작②: 어깨 부분 (양쪽 각각 교대 3회)
- 동작③: 팔 윗부분 (양쪽 각각 교대 3회)
- 동작④: 팔 아랫부분 (양쪽 각각 교대 3회)*



참진리

질문: 초창기에는 금세 부흥이 되어 제단을 성도들로 꽉 채울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답변: 이간자께서 1981년도 8월 18일 밭설에서 나오셔서 이 역사를 시작할 때에는 이간자의 분신으로 사람들을 승리제단까지 이끌어오 의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다 소변으로 피를 쏟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소변으로 피를 쏟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죄가 다 이제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쏟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피를 쏟고 은혜를 받은 사람 처 놓고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자께서는 피를 쏟는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중시한 겁니다.

질문: 피를 쏟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제단에 나오지 아니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안에 걸린 사람이건 위장병을 앓는 사람이건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건 무슨

하나님의 은혜 전도 문답 [13]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이간자께서 부어주는 은혜로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을 되찾게 되자 자신이 욕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떠난 것입니다. 제단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은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지만, 나를 버리기 위해 나의 생각과 판단을 쫓아내는 자유율법을 실천할 줄 몰랐고 오히려 '나라는 마귀를 위해 자신 속의 하나님의 생명을 소진시키는 삶을 택한 것입니다.

질문: '나라는 주체의식이 바로 마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답변: 우리 인간에게는 마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병존합니다. 마귀의 마음은 '나라는 주체의 식으로서 작용하는 지배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 내면의 양심으로서 '나라는 마귀 마음에 항상 억눌려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 인간은 회생적인 마음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고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하는 충성된 마음보다 나 개인의 부귀와 영달을 쫓는 마음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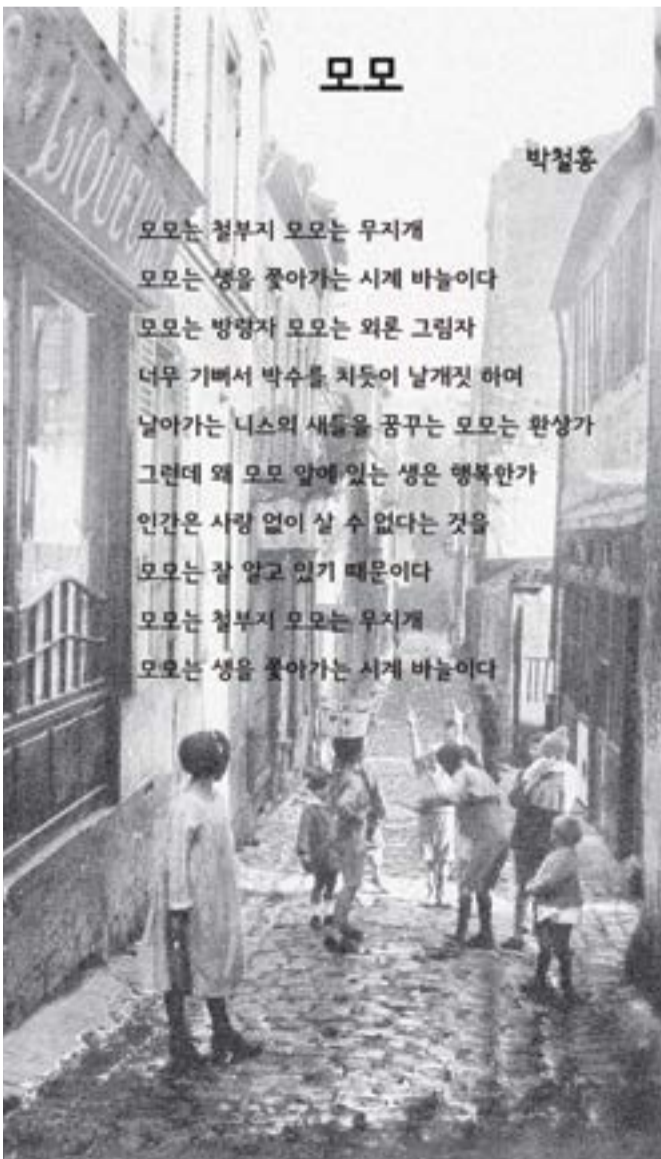
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승리제단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받은 은혜를 마귀가 쫓아먹지 못하게 입에 재갈을 물면 됩니다. 이것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 요즘에도 제단에서 예배를 보면 은혜 받는 체험을 합니까?

답변: 초신자에게는 불성신이 임하고 백합향취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게 마귀의 눈을 피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마귀를 속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감추려고 하시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숨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혜를 조금 체험했다고 금세 입을 벌려서 옆 사람에게 자랑을 하면 다시는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배로 받는 완성의 이슬성신 은혜는 '나라는 주체의식에 감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 한편

생각 한 줄



봄날 같은 날들이 이어지더니 비가 이슬 내리고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나는 오랜만에 예전에 아르바이트하던 주차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모님과 만나 식사를 했다. 사모님은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노인 일자리로 노노(老老)케어와 하시고 아파트 경로당 회장 일도 하시고 또 빈 시간에는 경로당 회원들과 마른 멸치 손질하는 일도 하신다. 참말로 바지런하시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사모님의 친구분도 함께 모시고 식당에 가서 흑태점을 사서 맛있게 먹었다. 깨끗하게 먹고나서 큰 점سي엔 양념만 잔뜩 남았다. 사모님이 식당 직원분을 불러 남은 양념을 싸달라고 하니 직원분이 웃으며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와 담아 주셨다. 사모님은 "이제 다 마늘 양념이니 가져가 밥 비벼 먹어라" 하시며 저에게 건네주셨다. 전에 나와 사모님은 유명한 샵브사브 가게에 가서 샵브사브는 안 시켜 먹고 뷔페식 샵러드 바에서 맛난 디저트만 먹었던 적도 있었는데 정말 실속과, 절약파이시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모님은 칠성시장에 들러 대파를 사고 동태도 사셨다. 매서운 찬 바람 속에서도 중년의 아주머니께서는 파를 다듬으며 장사를 하시고, 그 옆에 한 청년은 수산물 도매상에서 막 가져온 동태를 조그만 작두에 끊어서 손님들에게 팔고 있었다. 한테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겨울은 녹록치 않은 계절임이 실감이 났다. 그래도 지금은 작두로 동태를 자르니 그나마 좀 편해졌다. 예전에 장사하던 어머니들은 도마를 놓고 식칼로 내리치느라 손목이 많이 상하셨다. 사모님은 청년에게 잔잔하게 동태를 끊어달란다. 그애야 찌개를 끓여도 경로당 어르신들 한 톱마씩 다 돌아간다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겨울엔 추위를 견디기엔 뜨끈한 국물이 최고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없는 살림에 겨울 채비를 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겨울이 다가오면 겁이 슬슬 나기 시작하셨다. 그래도 이웃, 일가친척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고 있는 이들

을 보살피던 인정이 이어져 지금도 겨울이 되면 자신단체에 어머니들은 김장을 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행사가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힘으로 겨울을 버티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덕분에 나도 제단 성도님과 이웃들이 김장을 해서 김치를 주셔서 나처럼 혼자 사는 노총각들과 나누어 잘 먹고 있는데 감사하기 그지없다.

지자체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카드를 발급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굶주리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어떤 급식카드 가맹점의 주인분들은 아이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기 위해 적자를 보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 식사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다. 그 적자를 매꾸려고 식당 앞에서 봉어빵 장사까지 하시는 분도 있다. 그걸 보면 세상에 마음이 따뜻한 분이 많다.

예전에 대구 교대 앞에는 한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칼국수를 단돈 천원에 파셨다. 할머니 동생분이 의성에서 농사지는 밀을 빵이 가져와 새벽부터 반죽해 밀어서 잘라 국수를 만드셨다. 구수한 손칼국수의 맛은 일품이었고 밀가루 음식이 들어가면 속이 불편한 사람도 먹고서 속이 아주 편하다고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불치병에 걸린 손자를 위해 전 재산을 바쳐 미국에 있는 병원에게서 보내 병을 고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계기로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하셨다. 얼마전엔 동네 형님들과 시내에 있는 한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짜장면이 3000원, 짬뽕이 3500원이고 탕수육은 15000원에 중자를 시키니 대저만큼 주셨다. 세 사람이 배가 불러서 아직도 다 먹었는데 계산을 하려니까 천원을 또 빼주셨다. 키는 자그마하신데 몸집이 다부지게 생긴 주인 아주머니가 참 고맙웠다. 주변에 시장 상인이나 공장 직공들이 부담 없이 식사를 하라고 착한 가격을 고수하시는 것 같았다. 중국집 하시면서 은행에 잔고는 전혀 쌓지 못했으나 적선(積善)은 엄청나게 하셨으리라.

그날 우리가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중국집답게 티브이에서는 중국위성방송 채널에서 중국 전통 무술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중국의 전통 영화나 소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삼국지연의요 삼국지 안에서도 적벽대전이 가장 박진감이 넘친다. 우리나라 판소리 여섯 바탕 중에 적벽가가 있을 정도로 말이다.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대패하여 화웅도로 도망하여 끝내 관우에게 달미를 잡혔으나 조조는 자신이 관우에게 옛날에 베푼 은혜를 상기시키며 목숨을 구걸한다. 이에 의리의 사나이 관우는 군법을 어겨 돌아가 제갈공명에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조조를 풀어준다. 제갈공명 또한 조조는 이전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라며 관우를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하길 잘하던 현대의 영웅들은 지금은 신처럼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 올 한해를 보내며 마음이 아프도록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온 이웃들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소설 '자기 앞의 생'의 주인공 모모도 주위 어른들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마지막에는 배려심 많은 아이가 되어 자기를 돌봐준 조자 아주머니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픈 아주머니를 정성을 다해 보살핀다. 살다가 과정을 끝도 없이 되풀이하면서 나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이를 만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럴 때 우리는 엄마의 마음으로 서로를 끝없이 용서하고 껴안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철부지 모모와 같은 존재 아니까.

쾌락주의자인 나도 가끔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내 앞에 놓인 인생길이 돌밭길이고 가시밭길로만 보일 때가 있어 한숨이 나온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 힘들어도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겨보는 수밖에 없다. 가다보니 길가에 핀 이름모를 풀꽃들이 반기며 말을 건넨다. '힘 내게라이. 울 한해도 수고했데이~!!'*

리준경 / 대구승리제단 책임서사